

건협 30년의 발자취를 돌아본다

1. 한국위생동물협회와 한국기생충박멸협회의 창립

8.15 해방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정치적·경제적 불안정과 함께 심각한 보건위생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낙후된 의료시설과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환경 및 오염된 음식물 등에 의해 당시 국민들이 겪어야 했던 가장 커다란 문제는 각종 전염성 질환이었으며 따라서 당시의 보건정책은 이들 질환의 방역에 맞추어졌다.

이와 함께 문제가 되었던 것이 각종 질환을 전염시키는 위생곤충·쥐 등에 의한 피해였고 이의 퇴치를 위해, 한국기생충박멸협회의 전신인 한국위생동물협회가 1958년에 창설되었다.

한편 당시 이영춘박사가 소장으로 있던

던 농촌위생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에 만연했던 기생충 감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종전 직후 발표함으로써, 당시 우리나라 국민 보건의 심각성을 제기하는 한편 보다 적극적이고 범 국민적인 대처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탄생한 대한기생충학회(1959. 1. 15. 창립)와 보사부 공동 협의로 매년 기생충예방강조주간을 갖게 되었고 협회 산하에 부속 중앙기생충연구소를 개설하는 등 초·중·고 학생 집단검사의 효시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주한 외국인단체(KAVA)의 원조를 받아 막대한 양의 구충제로 무료 투약을 실시하게 되며 다각적인 지원의 약속으로 기생충관리사업을 하나의 국가사업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

하게 되었다.

한국기생충박멸협회는 위생동물협회의 주요 사업 내용이 이처럼 기생충 박멸 사업 중심으로 변모함에 따라, 한국위생동물협회의 발전적 해체에 의해 창립되었다.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를 초래한 기생충질환의 퇴치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함께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한다는 큰 사명을 띠고 관계당국 및 관계인사들의 기대 속에 1964. 4. 20 한국기생충박멸협회가 새롭게 출범하게 된 것이다.

기협의 설립을 계기로 구충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당면과제로 떠올랐고 정부에서는 전국 시·도에 기생충박멸협회 지부를 조직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기생충박멸사업을 전개하기로 결정한다. 그리하여 1965년 전국 11개 시·도지부의 조직이 완료되었다.

기협의 창립과 동시에 기생충질환예방법 및 동 시행령의 제정과 통과를 위해 해당 관공서와 관계기관을 찾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1966년 4월 9일 예방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국민들을 기생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2. 기협의 성장과 시련

1964년 4월 한국기생충박멸협회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발족한 협회는 [국민의 기생충 감염률 0% 달성 10년 운동]이라는 대 슬로건을 내걸게 된다. 협회는 사업의

방향을 ① 계몽사업 ② 구충시료사업 ③ 조사연구사업으로 대별하여 기생충에 대한 대대적인 계몽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활발한 움직임 속에서 협회는 여러 가지 난제를 겪어야 했고 그중에서도 극심한 재정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해 사회적 공신력이 크게 떨어지게 되자 관계당국인 보건사회부는 마침내 조직개편을 명하게 되었다.

1967년 8월 9일 대의원총회에서 대폭적인 임원개선을 단행하여 새로이 구성된 집행부에서는 우선 흐트러진 본부 및 시도지부를 재정비하여 내부를 안정시키는 한편, 땅에 떨어진 기협의 공신력을 회복시키고 전임자로부터 인수받은 부채 정리 등의 복잡 다난한 난제들을 처리해야 했다.

바쁜 나날 속에서도 일본해외기술협력사업단(OTCA)의 기술지원을 실현하게 되었고 사업체제의 확장과 내실을 바탕으로 1969년 5월 전국의 초, 중, 고교학생 전원에 대한 기생충검사기관으로 지정받는 패거리를 이룩하여 매년 2회(봄, 가을)에 걸쳐 각급 학교생 전원에게 기생충검사와 구충사업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학생기생충관리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기생충질환예방 계몽사업 및 기생충관리사업의 꾸준한 전개로 기협은 안정을 찾게 되었다.

3. OTCA의 지원과 기협의 안정

기생충질환 예방법의 시행에 의거하여



'64년 창립이후
건협은,
기생충박멸에
박차를 가해
당시 90%를 상회하던
기생충 감염률을
3% 미만으로 감소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일반주민, 농어촌 주민, 회사원, 학생들에 대한 집단기생충검사를 실시하게 되자 기협은 업무량의 증가와 자체 검사소건물의 부재, 병리기사의 절대적 부족, 검사 기자재 부족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기에 OTCA의 지원은 기생충박멸사업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어 주었다.

1965년 4월 長谷川秀治와 佐夕學 등 일본의 두 기생충학자의 초청을 계기로 한·일간의 기생충관계 교류에 물고름 뜨게 된 기협과 OTCA는 1968년 7월 5일 [한국 기생충사업 원조를 위한 일본국 조사단과 한국정부간의 기록서 합의]라는 제목으로 협의서를 체결, 조인함으로써 OTCA의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OTCA는 기협의 사업추진요원들에게 기생충학 전반에 관한 지식과 예방관리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각종 검사기자재와 약품 등의 원조물자를 제공하여 침체에 빠져있던 기협의 각종 사

업에 일대 쇄신을 이루게 되었다.

OTCA의 지원물자로 재정비한 기협은 1969년 7월 기생충 검진반 결단식을 국립의료원 대강당에서 거행하였으며 새로 도입된 검사장비로 69년 9월 1일~12월 25일까지 전국 500만여명의 초, 중, 고 학생 검변사업을 실시하여 학생검변사업의 장래에 밝은 전망을 보여 주었다.

기생충박멸 및 예방관리사업의 기반이 구축되면서 광범위하게 조직화된 체제를 형성할 수 있는 본회 및 지부건물의 확보가 필요했다. 건물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협력을 시도하던 기협에서는 한국주재 일본대사관 공보관의 주선으로 일본만국박람회 기념사업회로부터 건물신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만국박람회의 지원으로 1973년 7월에 경남, 경기, 경북지부가 청사를 준공하게 되었으며 1974년 12월에는 충남, 전남, 전북지부의 지원에 이어 서울시지부의 준공에 지원을 하여 총 66,109,000엔의 지원금을 보조하였다.



각 지부의 준공으로 각 지역적 특성에 맞는 사업의 질적, 양적향상을 유도하여 기술을 축적함으로써 보다 새롭고 보다 과학적인 국민보건정책을 수립, 전개하게 되었다.

4. 기협의 확장 및 성공적 기생충 관리에의 기여

본·지부 청사의 확보, 장비·인력의 적절한 배치로 안정을 찾은 기협은 이후 기생충 박멸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사업을 확장하게 된다. 이 시기의 사업 확장을 주도한 사람은 서병설 회장이다. 6, 7대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협회의 안정에 많은 기여를 했던 김연주 회장의 뒤를 이어 8대 회장에 취임한 서회장은, 일반주민·근로자 등에 대한 기생충 구제 사업을 확대 실시토록 하는 한편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의 국제교류사업에도 적극성을 띠어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처럼 안정된 기반 위에서, 서회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합심·협력하여 기생충 박멸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60년대 초 90%를 상회하던 기생충 감염률은 현저히 저하되기에 이른다.

'71년부터 매 5년마다 표본집단에 대해 실시해 온 전국장내기생충감염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71년 84.3%, '76년 63.2%, '81년 41.1%, '86년 12.9%, '92년 3.8%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기생충 관리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5. 질병 양상의 변화와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창립

이처럼 성공적으로 수행된 기생충관리 사업은 이제, 국내에서는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국외에서는 기생충관리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 동시에 아시아 각국에서는 자국 기생충관리사업 전개를 위한 표본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했다.

그런데, 기생충 감염률의 감소, 각종 전염성 질환의 퇴치 등 그동안 우리가 겪어야 했던 보건의료 상의 현안이 해결되는 것과 함께, 우리나라 질병 양상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즉, '60년대 이후의 급속한 경제발전에 힘입어 국민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식생활을 비롯한 국민들의 생활습관이 서구화되면서, 비전염성 만성 퇴행성 질환 소위 성인병의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계, 보건의료계에서는 국가 보건정책의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으며 국가에서도 성인병의 예방과 건강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국민건강생활지침을 제정·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다.

한편 건협은 기생충 감염률의 감소에 따라 기존의 시설·장비·인력을 활용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음을 판단하고 질병 양상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비전



건협은 앞으로,
지금까지의
발전을 토대로 하여
국민의 평생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예방사업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더욱 성실히
수행할 것이다.

염성 만성 퇴행성 질환의 조기발견·치료 유도를 위한 건강관리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게 되었다.

이 작업은 '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구체적으로 시작되었다. 정부와의 협의, 관련단체들과의 갈등, 기본 제원의 문제, 조직구성의 문제 등 여러가지 난제들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기협은 건강관리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82. 4. 20. 마침내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창립되었다. 기협과는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된 건협은 우선, 기협의 임직원들이 겸직을 하는 형태로 조직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건강관리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6. 건협의 건강관리사업 전개

기협과 건협이라는 두개의 법인 형태로 존재하게 된 협회는 기존의 기생총관리사업을 계속해서 실시하는 동시에 새로운 건강관리사업의 개발·확대를 위해서도 많

은 노력을 했다.

건협은 우선 사업의 내용을 건강검사업, 보건계몽사업, 조사연구사업 등으로 대별하여 사업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학생, 사업장 근로자 등의 집단 간염검사 및 접종을 비롯한 각종 성인병에 대한 건강검사, 국민의 보건 의식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보건계몽사업, 검사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등이 끊이지 개발되고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결과, 협회 창립 당시 9만7천여건에 불과했던 건강검사 실적은 '85년 189만여건, '90년 745만여건, '93년 1천33만여건 등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게 되며 검사 종목수에서도 창립초기인 '83년 20여 종목에서 '90년 83개 종목, '93년 120여개 종목으로 늘어나게 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종합건강검사 기관으로서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건협은 기존의 건강검진서비스를 이용해 산간·오지 주민과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 집단 검진을 실시



해 보건의료의 혜택이 부족한 지역이나 대상의 건강관리에도 크게 한몫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 조직망을 이용한 이동 건강검사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보건계몽사업 분야에서도 건강소식 발간, 유인물 제작, 주민 건강상담 등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 건강관리 공개장좌, 언론매체를 이용한 건강정보 제공, 각종 건강정보를 담은 소책자 발간 등 보다 다양하고 현실감있는 사업을 전개하게 되었다. 또한 조사연구사업에서도, 창립 이후 몇년간 실시해 온 건강검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건강검사의 질적 수준 향상, 새로운 검사법 개발, 보건교육 자료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 창출 등에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7. 기협·건협의 통합과 건강관리사업의 새로운 전환

한편 기생충 감염률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기생충 검사를 축소하자는 의견이 각계에서 나오게 되자 정부에서는 86년 이후 학생기생충 검사를 연차적으로 축소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기생충박멸 협회도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기에 이르렀으며 그때까지 2개의 법인 형태로 존재하던 기협·건협을 통합하여 건강관리사업을 보다 원활히 전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86년 11월 3일 한국기생충

박멸협회에 한국건강관리협회를 흡수·통합하고 11월 7일 한국건강관리협회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다. 건협의 목적과 이념 사업은 그 의미나 규모 면에서 더욱 커지게 되었으며 기생충관리사업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사업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게 된다.

기협·건협의 통합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건협은, 기존의 사업에 대한 평가·반성을 통하여 건강관리사업과 협회 운영 방법을 새롭게 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최신 장비의 도입과 다양한 검사종목 개발, 지부 청사의 증축과 검사시설 확충 등과 함께 검사 및 업무에 전산을 도입하면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사업전개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우수한 조직과 시설, 인력을 겸비한 보건예방사업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부단한 노력 속에서 30년을 달려 온 건협은 앞으로 지금까지의 발전을 토대로 하여,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가 대부분인 성인병의 특성에 따라 질병의 조기발견·치료 유도라는 건강관리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생활습관의 변화, 식생활 개선, 규칙적인 운동 등을 통한 질병의 사전 예방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건강관리법을 국민들이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교육사업에 주력할 것이며, 우수한 건강검사의 혜택을 국민들에게 부여함으로써 국민들의 평생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보건예방사업기관으로 자리잡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㉒